



박수민 송수아의 기도편지(2026.8)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몇 달은 저희 가정과 사역에 큰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교토에서는 카모가와 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고, 저희는 송수아 선교사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 머물며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교토에서 시작된 개척 선교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의 약함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저희는 이 두 자리 모두에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선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토 카모가와 교회 이야기





2026년 4월 18일 교토 카모가와 교회(京都鴨川)가 설립 및 헌당예배를 드림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저희는 2025년 1월에 15년간의 도쿄 사역을 마치고 교토로 이주한 뒤, 지난 1년간 교토에서 화요일 식사와 성경 공부 모임(화요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모르는 젊은이들을 초청해 식사와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교토 카모가와 교회 개척의 좋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화요 모임을 통해 저희와 교토에 오래 거주했던 한 가정이 교회 개척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선교사 가정이 더 합류해서 이렇게 세 가정이 교토 카모가와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카모가와 교회 설립예배는 교회 예배당 헌당예배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자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교회를 위한 예배당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교회 설립에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설립 및 헌당 예배에는 많은 지인과 이웃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도쿄닛포리교회와 서울의 디아스포라 교회가 다양한 지원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토 카모가와 교회에 에스겔 47:1-12 말씀에 기초해, 교토의 **생명의 강**이 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카모가와라는 아름다운 강이 흐릅니다. 교회 앞의 길 건너편에는 교토 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토 카모가와 교회를 카모가와 강처럼 아름답게 하시며, 교토, 간사이, 일본과 세계에 생명을 더하고 치료하며 열매를 맺는 생명의 강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세 가정으로 시작한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물줄기를 시작으로 역동하는 생명의 강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교토에서는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는 한국에서 투병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며 함께 현장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 일본 방문, 그리고 세례식

아내의 항암 치료가 끝난 후, 비자 연장 수속을 위해 잠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내의 치료 후유증이 있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조심해서 움직이고 최대한 고려해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일본에 갈 때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의 방문이었지만, 도쿄에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고, 교토에서는 주일 설교와 성찬식, 세례식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교토 카모가와 교회는 두 가정의 헌신과 사랑으로 주일 예배와 화요 모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모가와 교회의 예배에 나오시던 대만 분 한 분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세례를 신청했고, 적절한 세례자 교육을 받으신 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모가와 교회의 첫 세례식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4 개월 동안 병을 치료하느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말씀 전파 등 직접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어 서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저희는 또 한 번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현지 사람을 세우는 선교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을 지나며 선교는 때로는 우리는 멈추어 서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강함뿐 아니라 연약함도 하나님께 드러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하고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 감사드리신 것은 하나님이 저희가 지난 기간 사역하고 이양하고 떠났던 샤프로, 도쿄, 교토에 늘 교회와 사람을 남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송수이 선교사의 치료

아내의 발병과 치료 과정은 저희의 선교사 삶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생의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투병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지난 2 월, 아내 송수아 선교사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다행히 비교적 빠르게 3 월 30 일에 종양 제거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4 월 30 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해 총 4 회 치료를 마쳤습니다. 치료는 감사하게도 응급 상황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어려운 치료 과정을 용기와 인내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도와 사랑의 지원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를 섬겨 주셨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보내 주시는 분, 각종 식품을 보내 주시는 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시는 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 주신 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의 빛을 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경험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수아 선교사의 현 상태는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응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독한 항암 치료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체력이 바닥이 났고, 몸의 기능 중 일부가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던 일들이 이제는 하루의 큰 과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항암 전의 정상적인 생활과 체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좀 더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이제 8 월 20 일부터 16 회에 걸친 방사선 치료와 5 년간 항호르몬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항호르몬 치료는 약만 복용하기 때문에 9 월 중순 이후로는 1 년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도 안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해 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피 대표 사역 준비

2027 년 1 월부터 저는 지피선교회의 한국 본부 대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20 여 년 동안 여러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국에서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연결하고 선교 사역을 다시 세우는 일에 저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기도하고 생각하며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 소식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송수아 선교사의 치료 전 과정을 곁에서 동행해 왔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아내 옆에서 한없이 무력함을 느끼지만, 함께 무사히 여기까지 와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큰딸 희주와 작은딸 희원이가 엄마를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된 자녀의 존재였습니다. 두 딸이 제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엄마에게 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두 딸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희의 걸음이 때로는 예상과 다르게 멈추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 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토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 한국에서 이어지는 치료와 회복,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새로운 사역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1. **교토 카모가와 교회** - 교토의 젊은이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교토 현장의 동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예배와 양육, 관계 전도를 잘 감당하도록.
2. **도쿄닛포리국제교회** - 이양 이후의 중보기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목회자들과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3. **도쿄다니엘국제학교** -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도록. 학교 발전에 따른 새 건물을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때에 도쿄다니엘국제학교 2 대 교장을 세울 수 있도록.
4. **지피선교회 한국본부 대표 사역 준비** - 2027 년부터 맡게 될 새로운 책임을 믿음과 겸손으로 준비하고, 선교사와 교회를 잘 연결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5. **송수아 선교사의 회복** - 방사선 치료와 이후 항호르몬 치료를 잘 감당하고, 항암 후유증이 줄어들며 체력과 일상이 회복되도록.
6. **자녀들** - 희주와 희원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학업·인턴 생활 등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연약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 박수민·송수아 선교사 기도편지 (2026.8)

교토 카모가와 교회(京都鴨川) 개척

- 2026년 4월 18일, 교토 카모가와 교회 정식 출범
- 15년간의 도쿄 사역 후 교토에서 세 가정이 연합하여 개척했습니다.
- 에스겔 47장 기반의 “생명의 강” 비전
- 카모가와 강처럼 교토와 세계에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 개척 후 첫 세례식의 감격
- 대만인 자매님이 성도들의 사랑에 감동하여 첫 세례를 받았습니다.

송수아 선교사의 투병과 회복

- 수술 및 4회 항암 치료 무사히 완료
- 3월 중앙 제거 수술 후 어려운 항암 과정을 은혜로 마쳤습니다.
- 8월 말부터 방사선 및 항호르몬 치료 시작
- 16회의 방사선 치료를 통해 완전한 회복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우리는 멈추어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역 및 기도제목

- 2027년 1월, GP선교회 한국본부 대표 사역 시작
- 선교사와 교회를 연결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도 대상: 교토 카모가와 교회
주요 기도 내용: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도록
- 기도 대상: 송수아 선교사
주요 기도 내용: 방사선 치료 감당 및 항암 후유증 없는 재역 회복
- 기도 대상: 지피선교회 사역
주요 기도 내용: 2027년 한국본부 대표 사역을 위한 발굴과 겸손의 준비